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10.8.(목)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o	매수	
담당부서	평화협력과 (평화교류팀)	과 장	우병배 (031-8030-2410)					
		팀 장	이희훈 (031-8030-2421)					
		담당자	유예지 (031-8030-2423)					

- 평화의 시작에서 영원까지, 음악으로 이어가는 ‘파체(PACE)’ - 경기도 DMZ OPEN 국제음악제 10월 개막

- ‘PACE : 평화로 향하다’ 주제로 10.23.~25.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공연 4회 개최
 - 미하엘 잔데를링·여자경·진 솔·최영선 지휘, 손세혁·임지영·조수미 등 국내외 음악가와 KBS교향악단·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참여
- ‘Pulse-Awaken-Connect-Eternity’, 평화의 시작부터 지속까지 네 개의 무대로 이어지는 음악적 여정
 - 국제음악제 기념 위촉작 세계 초연·개정판 국내 초연, 말러 교향곡 제8번 ‘천인교향곡’, 조수미와 함께하는 전석 무료 폐막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 마련

경기도 DMZ(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종합예술축제 ‘2026 DMZ OPEN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인 ‘DMZ OPEN 국제음악제’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린다.

올해 국제음악제를 관통하는 주제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파체(PACE)’에서 착안한 ‘PACE : 평화로 향하다’이다. 평화를 하나의 완성된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과정으로 바라보며, 이를 ‘Pulse(시작의 박동)-Awaken(깨어나는 평화)-Connect(연결되는 마음)-Eternity(계속될 평화)’의 네 무대로 풀어낸다. 3일간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음악가들이 각기 다른 음악과 목소리로 참여하며, 네 무대가 이어지는 하나의 음악적 서사를 완성할 예정이다.

첫 무대인 23일 ‘Pulse - 시작의 박동’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온 미하엘 잔데를링이 KBS교향악단과 함께한다. 개막작은 이안 환(Whan Ri-Ahn)의 ‘봄은 올 것이다(Spring Will Come Again)’로, 2025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LA Phil)가 세계 초연한 작품을 이번 음악제를 위해 개정하여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황해도 해주를 떠나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할머니의 기억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추운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올 봄에 대한 기다림을 담았다. 이어 2026 제77회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손세혁이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협연하며, 2부에서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1번 ‘1905년’으로 개막 무대의 대미를 장식한다.

24일에는 ‘Awaken - 깨어나는 평화’와 ‘Connect - 연결되는 마음’ 두 무대가 펼쳐진다. 오전 11시 ‘Awaken’에는 지휘자 여자경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함께한다. 첫 곡은 2026 DMZ OPEN 국제음악제 위촉작인 이 한의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잠시도 잠잠하지 않으리라(all the day and all the night they shall never be silent)’로, 이날 세계 초연된다. 칼림바의 울림에서 출발해 관현악 전체로 확장되는 음악은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진행감’을 그리며, ‘평화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는 올해 음악제의 방향성과 맞닿는다. 이어 2015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임지영의 협연으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를,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을 연주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Connect - 연결되는 마음’이 이어진다. 지휘자 진솔이 이끄는 말러리안오케스트라는 말러 교향곡 제8번 E♭장조 ‘천인교향곡’을 연주한다. 이윤정·윤예영·장혜지·김세린·정수연·이기업·이승왕·전태현, 8명의 성악가와 수원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노이오페라코러스,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며, 오케스트라를 포함해 총 341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장대한 울림을 선보인다. 독창과 합창,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목소리가 서로 만나 하나의 음악으로 이어지는 ‘천인교향곡’을 통해 ‘Connect - 연결되는 마음’의 의미를 무대 위에서 구현할 예정

이다.

음악제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Eternity - 계속될 평화’가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최영선이 지휘하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며, 테너 진원과 트럼페터 알렉스 볼코프도 함께한다. 비제와 푸치니, 베르디의 오페라 명곡을 비롯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 이루마의 ‘Encore’까지 친숙하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피날레는 무라마츠 다카츠구의 ‘영원한 평화(Eternal Peace)’로 장식하며, ‘PACE : 평화로 향하다’라는 주제 아래 이어온 음악제의 여정을 ‘계속될 평화’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한다

특히 폐막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하여, 보다 많은 도민에게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연주를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 관람의 문턱을 낮춰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 한편, 음악제가 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티켓은 고양아람누리 누리집과 NOLETiket에서 예매할 수 있다. 23일과 24일 오후 7시 공연은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이며, 24일 오전 11시 공연은 전석 1만원, 25일 폐막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학생, 4인 이상 단체 관람객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아람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DMZ가 지닌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국내외에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2026 DMZ OPEN 국제음악제

□ 사업개요

- (기간/장소) '26. 10. 23.(금) ~ 10. 25.(일) [4회] /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 (소요예산) 736,857천원(전액 도비)
- (추진방식) 도 직접(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DMZ 가치를 담은 정통성 및 대중성을 지닌 클래식 등 공연 추진

□ 주요내용

일시	1회차 10/23(금) 19:30	2회차 10/24(토) 11:00	3회차 10/24(토) 19:00	4회차 10/25(일) 17:00
주제	PACE : 평화로 돌아가다			
	Pulse : 시작의 박동	Awaken : 깨어나는 평화	Connect : 연결되는 마음	Eternity : 계속될 평화
출연 진	 KBS 교향악단 미하엘 잔데를링(지휘) 손세혁(피아노)	 경기필오케스트라 여자경(지휘) 임지영(바이올린)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진솔(지휘)	 말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조수미(소프라노)
주요 곡목	위촉곡(1) 쇼스타코비치_피아노 협주곡 제2번	위촉곡(2) 멘델스존_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말러 교향곡 제8번 “천인교향곡”	영원한 평화
티켓 가격	3만원-2만원-1만원 (R-S-A)	전석 1만원	3만원-2만원-1만원 (R-S-A)	전석 무료